

# 그래도 전라도가 키운 전라도 기업인데...



### 이흥재의 세상만사 주필

빨간색 줄무늬에 거북이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언제 어디에서나 그 거북이가 눈에 띄면 반갑기 그지없었다. 신병 훈련소에서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는 '거북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고향이 그리워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는 이도 있었다. 거북이는 그만큼 우리 전라도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근한 존재였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처음으로 서울 구경을 간 적이 있다. 그곳에선 내년에 코를 빼어 간다는 말이 있었던 시절, 거북이는 시골 촌놈을 서울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었다. 추억의 '광주고속' 버스가. 명절 때도 많은 사람들이 거북이를 이용했다. 그 속에서 술한 로맨스도 피어났다.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골인했다더라는, 누군가의 이야기도 들려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

을 때면 부러웠다. 서울 같 이 있을 때 마다 설레었다. 내 옆자리에 예쁜 아가씨가 앉아 있기를 소망했다. 그러나 버스에 올라보면 허, 늙은 할머니! 기대는 늘 실망으로 바뀌었다. 머피의 법칙은 어찌 그리 잘도 들어맞던지.

광주고속이 삼밭마코로 거북이를 선정해 사용한 것은 고속버스가 막 운행되기 시작할 무렵인 1960년대 말경부터다. 느린 거북이를 택한 것은 안전을 강조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애초 박정구 전 회장(당시엔 전무)은 개(포인터)를 생각했었다고 한다. 미국의 고속버스 업체 그레이하운드를 참조한 것이었다. 한데 이 회사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급히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 '거북이' 추억의 광주고속

"어느 잡지사 기자와 얘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농반진반으로 거북이 얘기를 꺼냈어요. 다들 빠른 동물을 내걸 때인데 제일 느린 동물을 심벌로 한다는 게 기발하기도 하고, 또 안전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즉시 박정구 전무와 박성용 회장이 상의 드렸지요. 모두 대환영이었고 박

인천 창업회장님의 최종 승인 과정에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박삼구 회장의 회고다.

오늘 거북이에 대한 추억에 젖어 보는 것은 요즘 광주고속을 모태로 한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 때문이다. 그래도 전라도가 키운 우리 전라도 기업인데... 안타까운 마음에 창업주 박인천 회장의 일대기를 펼쳐 본다. '집념-길 위의 길'이란 제목의 소설이다. 최소한의 소설적 개연성만을 허용하고 모든 것은 자료와 증언에 근거한 사실로 구성했다고 한다.

지은이는 뜻밖에도 '박하사탕' '밀양'의 영화 감독 이창동이다. 그가 한때 국어교사를 지냈으며 일간지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소설가라는 사실을 이번호 처음 알았다. 그런 그가 기업인의 일대기를 쓰다니, 참 의외다. 정통과 작가들은 보통 기업인을 그리 갈갈게 여기지 않던가. 더군다나 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장관을 지낸 '좌파' (?) 문인 아닌가.

이창동은 왜 금호 박인천이란 인물에 끌렸을까. "무엇보다 그의 일생이 만만치 않은 역사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끝없이 도전과 시련을 거치면서 자기 경신을 거듭하여 오

늘의 발전을 이룬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그의 일생은 우리 역사의 엄정한 상징이 되고 있고, 또 그만큼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금호는 일제 강점기에 경찰을 지냈다는 이유로 인민군에 잡혀 형무소 생활을 한 적이 있다. 형무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차후 사업을 구상했다고 한다. 보통 사람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형무소 생활을 끝낸 뒤, 다시 돌아온 그의 회사는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렀으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타이어와 휘발유를 얻기 위해 단독으로 부산행을 감행한 것이다. 여전히 빨치산이 활동하고 있어 위험하던 때였다. 그는 말한다. "남달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절대 돈 못 번다."

이창동은 2년에 걸친 취재와 조사를 바탕으로 박인천의 집념 어린 생애와 기업정신을 감동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박인천은 1901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났다. 서당에 잠깐 다니다가 늦은 나이에 나주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중퇴하고(2학년) 이후 여러 장사에 손을 댔지만 거들 실패했다. 막연한 꿈을 안고 건너간 일본에서 그는 또다시 좌절하고, 한 달도 견디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온다.

순사 시험에 합격해 한국에서 경찰 생활을 하던 그는 5년간 독학한 끝에 보통 문관 시험에도 합격한다. 지금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보통문관 시험을 거의 무학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사람이 혼자서 해 낸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다가 일본인 경찰서장과의 마찰로 사임하고, 1946년 마흔여섯이라는 늦은 나이에 택시 두 대로 운수 사업에 뛰어들다. 그리고 2년 후, 택시업의 성공을 발판으로 버스업을 시작, 지질 줄 모르는 도전 정신과 끈기를 무기로 오늘날의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기반을 닦아 놓는다.

### 금호의 마지막 비장한 각오

단숨에 뛰어내린 소설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나서, 광주시 금남로 5가에 있는 광주시민문화관에 들었다. 금호 박인천 회장이 부인 이순정 여사와 함께 생전에 살던 자택이다. 입구에 들어서니 잘 가꾸어진 소나무 밑에 표지석이 하나 눈에 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다. "오백년을 기리며 2008.5.18. 이순정" 나의 눈은 '오백년'이란 문구에 강하게 쫓긴다. '오백년' 도입지를 필마로 돌아오니 인물은 간

데 없고'로 시작하는 시조도 떠오른다. 과연 금호는 다시 일어선 '500년 기업'이 될 수 있을까.

박정구 전 회장이 별세한 이후 어느 인사(박석무 전 국회의원)가 썼던 추모사 한 대목이 문득 뇌리를 스친다. "너무도 힘이 약하고 경제력이 떨어져 있는 전라도. 그러나 금호 그룹이라도 하나 있어 전라도의 긍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렇다. 금호는 우리의 자존심이자 긍지였다. 서울에 가면 우리나라 30대 기업 본사 가운데, 그래도 전라도 사투리가 들리는 곳은 거기 한 군데뿐이지 않았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 동안의 짚짚 뜻을 따져 봐야 부질없는 일. 그러나 우선은 어떻게든 금호가 다시 회생할 수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금호가 오너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 전량을 채권단에 담보로 맡기고 5000억 원의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후 3년 내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아시아나항공과 매각할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다. 이제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이 화답할 차례다. 쉽지는 않겠지만, 전라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

# 한전공대 2022년 정상 개교 '탄력'

### 1천억 지원 동의안 의회 본의회 통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세계 최고의 에너지 특화 대학'을 조성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

전남도의회는 11일 제 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가 제출한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따른 지원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전공대 지원 동의안의 의회 통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가 집적된 에너지 연구분야의 세계적 랜드마크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도는 앞으로 한전공대 설립·운영을 위한 대학발전기금으로 100억원씩 대학 개교시기(2022년 3월)에 맞춰 10년 간 1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전남도는 한전공대를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적인 에너지특화대학으로 설립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또 동의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범정부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를 통해 중앙부처 및 전전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광주·전남 대학과의 상생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사업대 운영비로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데 따른 타당성·형평성 논란을 우려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전남도는 빠른 시일 내에 협약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5·18 역사왜곡 처벌하라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5·18 행동의 날' 기자회견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농성단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체결할 계획으로, 재정 지원, 부지 제공,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40만㎡ 부지에 들어설 한전공대는 학부생 400명, 대학원생 600명 등 학생 수는 1000명, 교수진은 100명 규모로 건립된다. 오는 6월 설립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 9월 학교법인 설립, 2020년 도시계획변경, 2020년 6월 캠퍼스 건축허가 및 착공, 2021년 6월 대학설립인가, 2022년 2월 캠퍼스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 공로 직원에 3일 포상휴가

전남도가 성과를 올린 직원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조직 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1일 직원 400명이 참석한 4월 정례회에서 한전공대 유치,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정 등에 '공'을 세운 직원 각각 4명에게 개도이라 처음으로 포상휴가증을 수여했다. 이들 직원들은 3일간 포상휴가를 가게 된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또 '심심일만 사랑에 냉고 운영' 등 8개의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해 추진한 광양시 광양읍이 읍면동장 현장행정 평가에서 대상을 받아 시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여주시 만덕동과 함평군 신광면 역시 내실 있는 민원 업무 추진, 행정 사각지

## 임야·단독섬

바로잡니다. 010-6834-7400. 지분물건 환영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임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삼계면 죽림리 1536㎡ 백일홍·꾸지뽕나무 200여주있음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죽림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신안 자은면 한우리 해수욕장 1654㎡ 별장 등 적합 분할가능 평당65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투자·매도·교환

- 급매(주택) - 광산구 도천동 주택(방2) 대지 109㎡ 7천만원
-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아울렛 중 2층 전유 38㎡ 은행1억 매도4천
- 영암 삼호읍 용당리 공업지역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2천
- 운암동 대형아파트 지하 205㎡ 사무실 등 다용도 교환가능 1억8천
- 영광 영산면 산성리 땅 3088㎡ 주택 95㎡ 유실수 100여그루식재 2억
- 서구 아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 룸7 교환가능 임대중임 4억7천
- 강진 성천면 월출산 밑 4차선 접 4630㎡ 대형 저수지 인근 요양시설 적합 5억
- 담양 금성면 죽림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상가건물

- 영광 영산면 비닷가 땅 2191㎡ 펜션 건물 2동 380㎡ 수영장·매도 3억7천
- 충장로 4기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9천 월 1000. 25억
- 동구 지산동 땅 4732㎡ 건평 652㎡ 식당적합 18억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면 땅 258㎡ 건물 265㎡ 8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특급물건

- 나주 남평읍 우산리 61111㎡ 지구단위 해서 아파트 적합 222억
- 장흥 수문해수욕장 2346㎡ 펜션 등 적합 원룸부지와 교환가능 4억7천
- 북구 용두동 6차선접 4899㎡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합 45억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펜션 대지 2180㎡ 펜션3동 372㎡ 8억
- 나주 금천면 국도 접 주거지·대지·자연녹지 25714㎡ 은행 12억 매도 24억
- 북구 북동 금남로 57억 대로점 중심상업지 364㎡ 사옥 등 적합 1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 여수 땅, 급매

- 여주시 봉강동, 대지 431평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
- 대출-20억5천만원
- 시세/감정가-약 40억
- 모든업종 개발가능
- 분할매매 가능
- 매매 - 상담후 결정

주인직매. 010-3627-8282

### 다스코진 세라코진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상가/주택지역 일산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부지를 임대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업주에 참여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상가/주택 지역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으신 분
  - 태도 당대기가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사업주에
3. 태양광 영업 인재 모집
  - 태양광 영업/영업 지원
  - 태양광 사업을 영업 지원
  - 태양광 개발/영업 지원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부동산/에너지/금융/인사/교육/법률/의료/건설/제조/유통/서비스/여행/관광/스포츠/엔터테인먼트/교육/의료/건설/제조/유통/서비스/여행/관광/스포츠/엔터테인먼트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업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전략기획	전략기획	· 사업담당 분석 가능, 경력 10년 이상	회
		영업	영업	· 태양광 영업 경력	
세	라	수집관리	영업	· 설계영업 경력	나
		영업	영업	· 설계영업 경력	
세	라	영업(영업지원)	영업	· 영업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주
		영업	영업	· 영업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신청처: 영업부 05330-232, msa@daesco.kr, 접수기간: ~ 채용시까지